

맞벌이 직장인들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MBTI 성격유형(E-I, S-N)에 따른 대처방식들의 조절효과

이 은 회[†]
전남대학교

이 주 회
동신대학교

본 연구는 맞벌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장과 가정의 역할갈등들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MBTI 성격유형(I/E, S/N)에 따른 대처방식들의 효과성을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맞벌이 교사 5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MBTI성격유형별로 분류하여(I(내향성) = 335명, E(외향성) = 169명, S(감각형) = 431명, N(직관형) = 76명) 직무과부하, 직무역할갈등 및 모호성, 자녀양육갈등, 가사분담갈등의 예언변인들과 중속변인인 우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 사회적지원 요청대처, 회피 대처방식의 조절변인들이 완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향성 응답자들에게서 가사분담갈등과 우울과의 관계, 직무역할갈등 및 모호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회피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자녀양육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역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감각형 응답자들에게서 가사분담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회피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자녀양육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역완충효과가 발견되었다. 직관형 응답자들에게서 직무과부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 맞벌이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들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처방식들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며, 대처방식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잠정적 스트레스 대처관련 특이성적으로서 직관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 우울, MBTI 성격유형, 대처방식, 조절효과

이은회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이주회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본 연구는 두뇌한국(Brain Korea21)사업에서 지원이 있었음

† 교신저자 : 이 은 회,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11-634-1577 E-mail : ehlee@hanmail.net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맞벌이가 일반적인 부부 생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U. 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5). 이러한 맞벌이 생활방식의 증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의 변화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다중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 외에 직장에서의 역할에 관여되게 되었으며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역할 외에 가정에서의 가사와 자녀 양육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결국 맞벌이들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중 역할의 증가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갈등이 심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건강과 이들이 속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2000). 따라서 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들을 통합하고 균형있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관리,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다(Murphy, 1988). 스트레스 감소 전략은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환경이 스트레스를 덜 주도록 작업조건을 바꾸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작업조건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조력하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기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관적인 디스트레스(불안)와 심리-생리적 지표들(혈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urphy, 1988).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에서는 상담에 의한 개입기법으로서 치료후의 직장복귀율, 치료후의 행동변화, 기업에서의 비용절감의 준거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 Sadri, 1995; Swanson & Murphy, 1991).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처전략으로서, 스트레스 과정과 적응적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이다(Lazarus, 1995).

상호거래적 이론에서는 환경이 개인의 안녕에 해를 미치거나,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일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스트레스 처리 과정에서의 대처란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스트레스성으로 평가되어진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91). 개인의 지각과정과 평가과정이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적 요구와 개인의 대처자원간에 불균형을 이룰 때(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외부사건에 대하여 그 개인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개인 내의 인지적 평가는 1차적 평가와 2차적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1차적 평가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위협적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만약 위협적으로 평가되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지각되는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2차적 평가를 시작한다. 그래서 2차적 평가에서는 지각된 해나 위협 도전을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대처방식을 선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2차적 평가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는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기제를 선택한다. 만약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때는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를 통하여 심리적인 증상을 떨어뜨리는 반면에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를 통하여 심리적 증상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Forsythe & Compas, 1987). 문제중심 대처는 자신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원이나 문제 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는데 관련된 인지적, 문제해결적 노력들과 정보추구 활

동들 및 행동적 전략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중심 대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려는 인지적, 심리내적, 행동적 노력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Folkman & Lazarus, 1980).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분류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구분이지만(Lazarus & Folkman, 1984)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대처 차원들이 제시된 바 있다(Billings & Moos, 1982;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Endler & Parker, 1990; Latack & Havlovic, 1992; Pearlin & Schooler, 1978; Roth & Cohen, 1986). Pearlin과 Schooler(1978)는 문제 지향적, 인지적, 정서 완충적 대처의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Billings와 Moos(1982)는 평가적, 문제 중심적, 정서 중심적 대처의 차원으로, Roth와 Cohen(1986)은 접근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의 차원으로, Carver 등(1989)은 문제중심, 정서중심, 회피 대처의 차원으로, Endler와 Parker(1990)는 과제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대처의 차원으로, Latack과 Havlovic(1992)은 사회적 대처와 고립적 대처의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나름대로의 요인을 찾아내어 대처방식의 하위척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Latack과 Havlovic(1992)의 대처 문항들은 사회적 대처와 고립적 대처의 차원 외에 대처의 초점(문제중심 : 정서중심)과 대처방법(인지적 : 행동적)의 차원까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다차원 대처척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Havlovic & Keenan, 1995).

그런데 개인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대처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나 상담 장면에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피상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다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실패한다(Lazarus, 1995). 이러한 개인특성 요인인 신경증(Headey & Wearing, 1989), 강건성(Rhodewalt & Zone, 1989), 낙관성(Scheier & Carver, 1985), A행동유형

(Carver et al., 1989; Kirmeyer & Diamond, 1985), 내외통제형(Fleishman, 1984; Strickland, 1978) 내-외향성 성격(유정이, 1999; 홍지영, 1995; McCrae & Costa, 1986)에 따라서 다른 대처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Headey와 Wearing(1989)은 신경증이 재정적인 문제나 직무 문제 같은 부정적 인생 사건들의 높은 보고를 예언해주고 외향성은 호의적인 친구관계나 직무 사건들 같은 긍정적인 사건들의 많은 보고를 예언해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Bolger와 Schilling(1991)은 높은 신경증을 보이는 참여자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하였다고 보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Scheier, Weintraub와 Carver(1986)는 통제가능한 상황에서 낙관성이 문제 해결적 노력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Rhodewalt와 Zone(1989)은 강건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사건들과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덜 보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Kirmeyer와 Diamond(1985)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할 때 A행동유형의 경찰관일수록 보다 적극적이며 초점을 좁히는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Carver 등(1989)도 A행동유형과 적극적 대처 및 계획적 대처척도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내적 통제자(Internal locus of control)일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고 외적 통제자(External locus of control)일수록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Fleishman, 1984; Strickland, 1978).

McCrae와 Costa(1986)는 외향적 성격은 능동적 대처를 하고 내향적 성격은 소극적 대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유정이(1999)도 외향적 성격유형(E)은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방식과 타협의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내향적 성격유형(I)은 분리의 대처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홍지영(1995)도 외향적 성격유형(E)과 인식

형(P)의 성격유형이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개인 특성 중 MBTI 성격유형(내-외향성,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 분류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상담자들이 간과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Dryden & Feltham, 1992). 이 유형 이론에서는 각 개인들이 8가지 기능(내-외향성,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중에서 4가지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한다. 처음 3가지 행동적 차원은 Jung에 의해서 고안되었으며, 나머지 네 번째 차원은 Meyers와 Briggs가 추가하였다. 외향성들은 내향성들보다 보다 용이하게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내향성들은 말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하여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다. 감각형들은 오관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직관형들은 육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 감각형의 시간 지향성은 현재와 지금 어떤가에 보다 관심을 두지만, 직관형들은 미래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보다 초점을 둔다. 사고형들은 논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감정형들은 그 선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사고형들은 분석적이 될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감정형들은 보다 정서적이 되는 경향성이 있다. 판단형들은 결정이나 과제들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인식형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고 지연시키기는 경향이 있기가 쉽다(Coe, 1992).

MBTI 성격유형은 정신증 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내담자들의 임상, 상담 및 심리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도구이다(Davito, 1985; Furnham, 1996에서 재인용). 이 성격유형 분류는 내담자가

적합한 직업들을 탐색하여 식별하도록 내담자들을 조력하는 진로상담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Thompson & Ackerman, 1994). 또한 내담자에 대한 신속하고 깊은 공감을 요하는 단기상담에서 유용한 분류로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성격유형의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며, 내담자의 성격유형에 맞도록 자신의 상담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Bayne, 1995). 게다가 내담자와 상담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Miller, 1991). Bayne(1995)은 내향성(E)-외향성(I), 감각형(S)-직관형(N)차원의 4가지 차원의 성격유형과 상담방법을 부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그는 외향성 내담자들은 사회성이 많고 다변적이어서 인간중심 상담과 집단상담이 적합하고, 내향성 내담자들은 자발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인지상담과 게스탈트 상담이 적합하다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감각형 내담자들은 환상을 싫어하고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환상이나 꿈의 해석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유도되지 않는 상식적인 인지-행동적 상담방법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내담자의 성격유형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내성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생각과 경험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성격의 사람들에게 맞는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이 다른 유형의 성격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도 않고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Milner & Palmer, 1998).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맞벌이 직장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개인 차 변인인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들에

서 스트레스 수준을 통제하거나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대처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Aldwin, 1994). 또한 이러한 대처방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절효과 검증은 이론적으로 효과가 발견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직접 현장연구에서 그 효과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orris, Sherman, & Mansfield, 1986).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조직, 부적 생활스트레스)와 직무만족, 탈진과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의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발견한 Bhagat, Allie와 Ford(1995)의 연구,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 일이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지각과 탈진간의 관계, 일이 여가활동을 방해한다는 지각과 탈진간의 관계, 일이가사수행을 방해한다는 지각과 탈진과의 관계에서 역완충효과가 나타남을 발견한 이은희, 최태산과 임은정(2000)의 연구, 여교사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남교사들의 경우에 학교의 지원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수업준비 부실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간의 관계에서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역완충효과가, 수업준비가 부실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의 관계에서 역완충효과가 나타남을 발견한 이은희, 이주희(200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발견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극히 드문 편이다. 게다가 맞벌이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성격유형에 따른 대처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갈등과 가정갈등을 동시에 받는 맞벌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직무갈등(직무과부하, 직무역할갈등 및 모호성), 가정갈등(가사분담갈등, 자녀양육갈등)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내담자의 성격차원(MBTI의 E-I 차원과 S-N차원)에 따라서 어떤 대처방법이 효과적으로 완충하는지를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즉 MBTI 4가지 성격유형(E, I, S, N)에 따라서 어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G광역시와 J도 초·중·고등학교 35개 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부 맞벌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원들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이들에게 협조를 구한 후에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MBTI 성격검사는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최종적으로 64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무응답이 많은 16부와 성별 및 사회인구학적 응답내용이 빠진 10부를 제외한 614부를 분석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614명중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46쌍(92명)의 부부교사를 제외한 52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교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여타 직업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시간 및 사회경제적 자원(소득, 교육정도, 직업)이 남편과 부인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 자체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Coverman & Sheley, 1986; Levy-Shiff & Israelashvili, 1988; Maret & Finlay, 1984) 맞벌이 부부들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성차를 반영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성별, 교육정도, 근로시간, 소득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차를 제외한 다른 영향을 많이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과정에서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응답자들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6명을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최종 분석대상자는 516명이었다.

본 연구 대상 맞벌이 교사의 MBTI 성격유형 특성의 2가지 선호지표별로 보면 외향성(E)이 169명(33.5%), 내향성(I)이 335명(66.5%)이고, 감각형(S)이 431명(85.0%), 직관형(N)이 76명(2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2가지 선호지표를 남녀별로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가 없었다(E-I 지표($\chi^2(1, N = 504) = .009, p = .925$, S-N 지표($\chi^2(1, N = 507) = 2.969, p = .085$).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설문지의 측정변수들은 맞벌이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받는 역할갈등인 가사분담갈등, 자녀양육갈등과 직장에서 받는 역할갈등인 직무 역할갈등, 직무과부하의 4개 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조절변인으로서 대처방식(적극적, 사회적지원요청, 회피)의 3개 변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준거변인으로서 우울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MBTI GS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자녀양육 갈등: 서혜영(1999)이 변안한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SF)중 18문항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 = .87$)

가사분담 갈등: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이 부부간의 갈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연령이나 교육적인

성취, 부인의 직위보다도 중요한 점을 밝힌 연구(Suitor, 1991; 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1997),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지각이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련된다는 연구(Blair & Johnson, 1992; Ross & Mirowsky, 1988)들을 고려하여 Benin과 Agostinelli(1988)이 사용한 부부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1문항(“전반적으로 현재 가사분담에 대해 만족한다”)과, Yogev와 Brett(1985)가 사용한 부부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전반적인 공평성의 지각을 묻는 1문항(“전반적으로 현재 가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배우자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 = .74$).

직무역할과부하: 이종목(1988)이 Caplan과 Pinneau(1973)의 Job demands and Worker health 질문지를 변안 사용한 부분중 직무역할과부하를 측정하는 6문항을 선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 = .85$).

직무 역할갈등·모호성: 이종목(1988)이 Caplan과 Pinneau(1973)의 Job demands and Worker health 질문지를 변안 사용한 부분중 역할갈등 및 모호성에 관한 문항8문항을 선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이종목(1988)의 연구결과와 같이 역할갈등과 모호성 요인이 구분되지 않아서 직무 역할갈등·모호성 척도로 명명하였다($\alpha = .89$).

대처방식: Latack과 Havlovic(1992)의 대처방식척도 26문항 중 알코올사용 2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을 선정하여 238명의 교사(남교사 100명, 여교사

138명)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 특수변량과 오차변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각 문항들내의 요인구조의 탐색에 목적이 있어서 SAS를 이용하여 주축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Varimax회전을 시켰다(Tabachnick & Fidell, 1996). 공통분(communality)의 초기값은 SMC(중다상관제곱값)를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검사(Scree Plot),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 고유가(Eigenvalue)를 고려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요인1: Eigenvalue=5.99, 설명변량=57.9%, 5문항, 요인2: Eigenvalue=1.62, 설명변량=15.6%, 4문항, 요인3: Eigenvalue=1.24, 설명변량=12.0%, 4문항),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추출된 13문항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1이 전체 변량의 61.9%를, 요인2가 22.7%를, 요인3이 15.4%를 설명하였다. 부록에 각 요인별 문항들과 요인부하량이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주로 긍정적 사고와 직접적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요인으로 명명하였다($\alpha = .77$). 요인2는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게의 도움요청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지원 요청 대처”요인으로 명명하였다($\alpha = .70$). 요인3은 주로 소극적인 대처로서 회피와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회피 대처”요인으로 명명하였다($\alpha = .62$). 본 연구에 사용된 대처방식 척도 전체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Cronbach alpha)은 $\alpha = .70$ 이었다.

우울: Dohrenwend, Shrout와 Egri(1980)에 의해 개발된 PERI(Psychiatric Epidemiology Research Interview)

중 우울척도 4문항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 = .88$).

MBTI 성격유형: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인용 성격유형검사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Form G를 심혜숙과 김정택(1990)이 표준화과정을 거쳐 한국판 MBTI로 제작한 GS형 9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는 응답자의 성격유형이 4쌍의 선호지표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 주의집중과 에너지 방향과 원천에 따라서 외향성(Extroversions)과 내향성(Introversion), 정보수집(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형(Sensing)과 직관형(iNtution), 의사결정(판단) 기능에 따라서 사고형(Thinking)과 감정형(Feeling),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판단형(Judging)과 인식형(Perception)으로 구분된다. MBTI성격유형은 MBTI검사를 받았을 때 개인이 선택한 이들 4쌍의 선호지표의 조합에 의해서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자료검토

극단치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사전분석으로서 다변량 극단치 검증이 필요한데, SAS의 Cook's distance, DFFITS, DBETAS, RSTUDENT등을 종합하여 각 사례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영향력 검증을 하였다. 총 614명이 조사되었으나 그 중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 성인자녀들만 둔 부부를 뺀 5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6명을 제외시킨 5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극단치가 색출되지 않아서 최종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회귀진단: 회귀모형진단을 통하여 분산확대인자, 허용도 상태지수들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들간

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최종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영향력의 관찰치를 검정하였으나 극단치(outlier)가 발견되지 않아서 분석의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가사분담갈등, 자녀양육갈등, 직무 역할갈등 및 모호성, 직무과부하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것으로 예견되는 대처방식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상호작용효과(X*Z)변인이 추가되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감소하는 전략으로서 centering 방법(Aiken & West, 1991; Aldwin, 1994)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때는 두변인간의 비직선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측정오차에 의한 곡선적 효과에 의하여 의사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Lubinski & Humphreys, 1990; MacCallum & Mar, 1995)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 중에서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설명량이 많은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 과

우울과 관련변인들의 상관 및 차이(I/E, S/N)

MBTI 성격유형 중 E-I 유형별 우울과 관련변인들의 평균차의 *t*-검증 및 상관분석의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내향성 응답자들의 우울은 자녀양육갈등, $r = .42, p < .001$, 직무과부하, $r = .39, p < .001$, 직무역할/모호성, $r = .30, p < .001$, 가사분담갈등, $r = .22, p < .001$, 회피대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19, p < .001$. 이러한 결과는 내향적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직무과부하 및 직무역할/모호성, 가정에서 자녀양육갈등과 가사분담갈등을 더 지각할수록 우울증상을 더 호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회피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증상의 호소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내향적인 응답자들의 자녀양육갈등은 회피대처와는 정적인 상관, $r = .24, p < .001$, 적극적 대처와는 부적의 상관, $r = -.12, p < .05$. 이러한 결과는 내향적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갈등을 지각할수록 회피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며 보다 덜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외향성 응답자들의 우울은 직무과부하, $r = .53, p < .001$, 직무역할모호성, $r = .42, p < .001$, 자녀양육갈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39, p < .001$.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직무과부하 및 직무역할/모호성, 가정에서 자녀양육갈등을 더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을 더 호소함을 의미한다. 외향적인 응답자들의 자녀양육갈등은 회피대처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 $r = .18, p < .001$.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갈등을 더 경험할수록 더욱 회피 대처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향성 응답자들이 외향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우울, $t(502) = 2.27, p < .05$, 가사분담갈등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02) = 2.02, p < .05$. 반면에 외향성 응답자들이 내향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적극적 대처, $t(502) = 2.44, p < .05$, 사회적 지원 요청 대처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02) = 2.15, p < .05$.

형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직무과부하 및 직무역할/모호성, 가정에서 자녀양육갈등과 가사분담갈등을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을 더 호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회피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증상의 호소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직관형 응답자들의 자녀양육 갈등은 회피대처와는 정적인 상관을, $r = .23, p < .001$, 적극적 대처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15, p < .01$. 이러한 결과는 내향적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갈등을 더 지각할수록 회피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며 보다 덜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직관형 응답자들의 우울은 자녀양육갈등, $r = .48, p < .001$, 직무과부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26, p < .05$. 이러한 결과는 직관형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직무과부하, 가정에서 자녀양육갈등을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을 더 호소함을 의미한다. 직관형 응답자들의 가사분담 갈등은 회피대처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31, p < .01$. 이러한 결과는 직관형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갈등을 더 지각할수록 회피 대처를 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직관형 응답자들이 감각형 응답자들에 비해서 직무역할/모호성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05) = 2.68, p < .05$.

직장갈등과 가정갈등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방식들의 조절효과

우울 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직장갈등변인(직무과부하, 직무역할/모호성), 가정갈등변인(가사분담갈등, 자녀양육갈등)의 각 예측변인과 대처방식(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원 요청 대처, 회피대처) 조절변인들간의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MBTI 성격유형의 E-I, S-N 차원별로 실시하였다. 표 3에

직장 및 가정 갈등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한 MBTI 성격유형별 적극적 대처방식의 유의미한 조절변인의 효과가 제시되어 있고, 표 4에는 회피대처방식의 유의미한 조절변인의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적극적 대처방법의 조절효과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3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다시 이를 갈등변인과 대처변인들이 곡선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의 증분효과를 검증한 결과 3개 모두 다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설명량이 많아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적극적 대처방식이 내향형(I) 응답자들의 우울증상과 자녀양육갈등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Delta R^2 = .016, \Delta Adj. R^2 = .013, \Delta F = 6.44, p < .05$, 이러한 관계식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향형 응답자들에게서 자녀양육갈등이 증가할 때 적극적 대처방식은 우울 증상을 증폭시키는 역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대처방식이 감각형(S) 응답자들의 우울증상과 자녀양육갈등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Delta R^2 = .011, \Delta Adj. R^2 = .009, \Delta F = 5.75, p < .05$, 이러한 관계식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감각형 응답자들에게서 자녀양육갈등이 증가할 때 적극적 대처방식은 우울 증상을 증폭시키는 역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대처방식이 직관형(N) 응답자들의 우울증상과 직무과부하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Delta R^2 = .046, \Delta Adj. R^2 = .035, \Delta F = 3.79, p < .05$, 이러한 관계식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관형 응답자들에게서 직무과부하가 증가할 때 적극적 대처방식은 우울 증상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직장 및 가정 갈등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적극적 대처방법 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결과

변인	β	R^2	$Adj.R^2$	ΔR^2	$\Delta Adj.R^2$	F
I형(N = 332)						
Block1						
자녀양육갈등(A)	.406***					
적극적 대처 (B)	-.040	.182	.177	.182	.177	36.65***
Block2						
A×B	.126*	.198	.190	.016	.013	6.44*
S형(N = 428)						
Block1						
자녀양육갈등(A)	.393***					
적극적 대처 (B)	-.020	.159	.155	.159	.155	40.19***
Block2						
A×B	.107*	.170	.164	.011	.009	5.75*
N형(N = 75)						
Block1						
직무과부하(A)	.357**					
적극적 대처 (B)	.184	.093	.068	.093	.068	3.76*
Block2						
A×B	-.235*	.139	.103	.046		3.79*

주. β = 최종 회귀모델에서의 각 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R^2 = block들의 투입후의 누적설명변량. $Adj.R^2$ = 예측변인들의 수를 조정한 block들의 투입후에 누적 설명 변량. ΔR^2 = block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Adj.\Delta R^2$ = 예측변인들의 수를 조정한 block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F = block 투입에 기인한 ΔR^2 의 유의미성의 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직장 및 가정 갈등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회피 대처 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결과

변인	β	R^2	$Adj. R^2$	ΔR^2	$\Delta Adj. R^2$	F
I형(N = 334)						
Block1						
가사분담갈등(A)	.210 ^{***}					
회피대처 (B)	.191 ^{***}	.085	.080	.085	.080	15.49 ^{***}
Block2						
A×B	-.125 [*]	.100	.093	.015	.013	5.73 [*]
I형(N = 334)						
Block1						
직무역할/모호성 (A)	.254 ^{***}					
회피대처 (B)	.116 [*]	.107	.101	.107	.101	19.79 ^{***}
Block2						
A×B	-.112 [*]	.118	.110	.011	.009	4.35 [*]
S형(N = 430)						
Block1						
가사분담갈등(A)	.156 ^{***}					
회피대처 (B)	.150 ^{**}	.053	.048	.053	.048	11.88 ^{***}
Block2						
A×B	-.102 [*]	.063	.056	.010	.008	4.70 [*]

주. β = 최종 회귀모델에서의 각 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R^2 = block들의 투입후의 누적설명변량. $Adj. R^2$ = 예측변인들의 수를 조정 한 block들의 투입후에 누적 설명 변량.

ΔR^2 = block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Adj. \Delta R^2$ = 예측변인들의 수를 조정 한 block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F = block 투입에 기인한 ΔR^2 의 유의미성의 검증치.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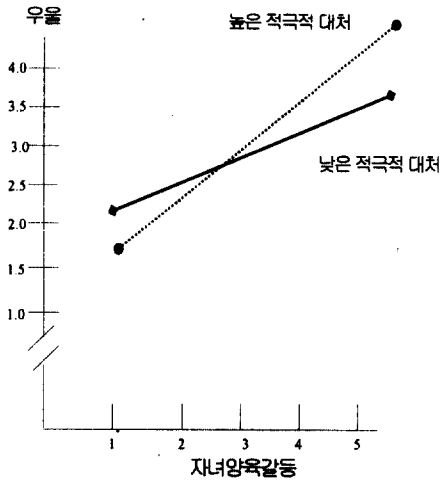


그림 1. 내향성 응답자들의 자녀양육갈등과 적극적 대처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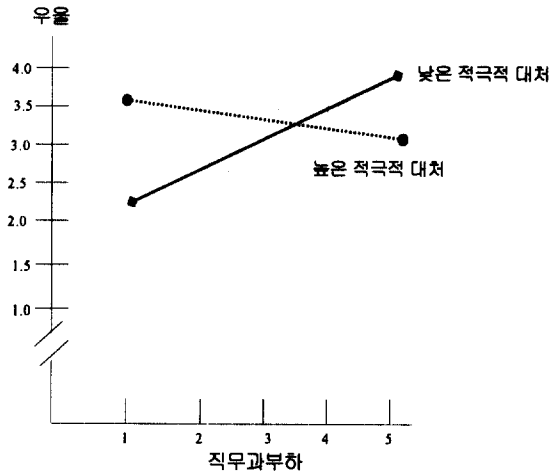


그림 3. 직관형 응답자들의 직무과부하와 적극적 대처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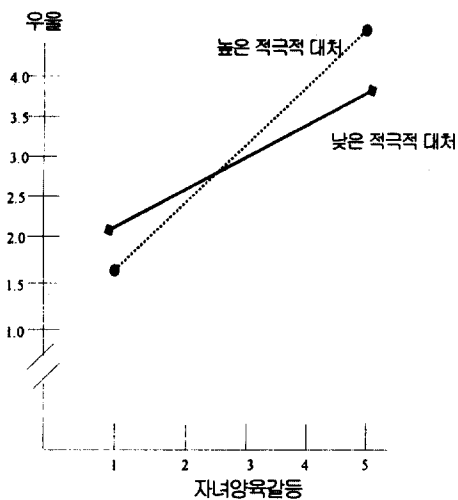


그림 2. 감각형 응답자들의 자녀양육갈등과 적극적 대처의 상호작용

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의 증분효과를 검증하였다. 감각형(S형)들에게서 직무과부하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회피대처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Delta R^2 = 009$, $\Delta Adj.R^2 = 008$, $\Delta F = 5.10$, $p < .05$, (직무과부하)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이 더 커서 의사조절효과로 결론지었다, $\Delta R^2 = 013$, $\Delta Adj.R^2 = 012$, $\Delta F = 7.42$, $p < .01$. 또한 직관형(N형)들에게서 직무과부하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회피대처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Delta R^2 = 071$, $\Delta Adj.R^2 = 061$, $\Delta F = 5.10$, $p < .05$, (회피대처방식)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이 더 커서 의사조절효과로 결론지었다, $\Delta R^2 = 088$, $Adj.R^2 = 078$, $\Delta F = 7.57$, $p < .01$. 나머지 3개는 모두 다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설명량이 많아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이들 결과들이 표 4와 그림 4, 5, 6에 제시되어 있다.

회피대처의 조절효과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5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다시 이를 갈등변인과 대처변인들이 곡선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

회피 대처방식이 내향성 응답자들의 우울증상과 가사분담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Delta R^2 = 015$, $\Delta Adj.R^2 = 013$, $\Delta F = 5.73$, $p < .05$, 이러한 관계식이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에 제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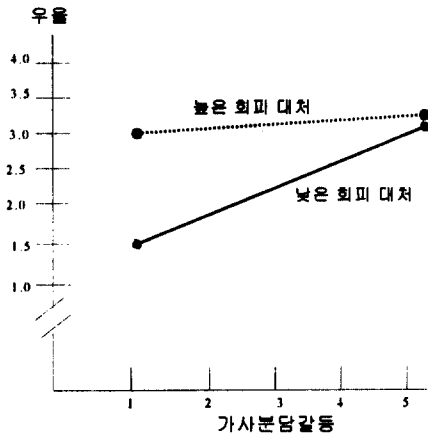


그림 4. 내향형 응답자들의 가사분담갈등과 회피 대처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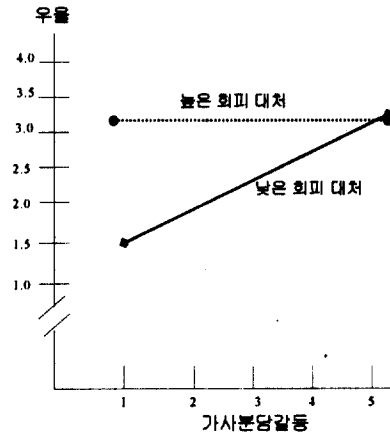


그림 6. 내향형 응답자들의 직무역할 및 모호성과 회피 대처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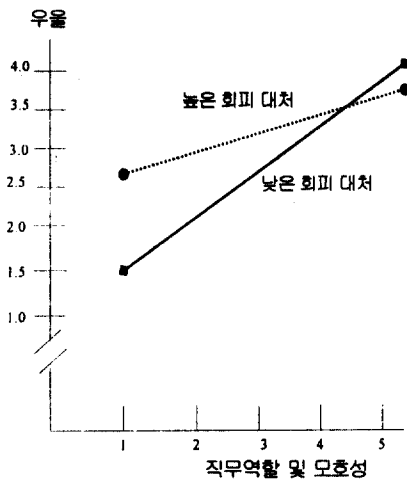


그림 5. 감각형 응답자들의 가사분담갈등과 회피 대처의 상호작용

이러한 관계식이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향성 응답자들에게서 직무역할 및 모호성이 증가할 때 회피 대처방식은 우울 증상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피 대처방식이 감각형 응답자들의 우울증상과 가사분담갈등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Delta R^2 = .010$, $\Delta Adj.R^2 = .008$, $\Delta F = 4.70$, $p < .05$, 이러한 관계식이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감각형 응답자들에게서 가사분담갈등이 증가할 때 회피 대처방식은 우울 증상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바와 같이 내향성 응답자들에게서 가사분담갈등이 증가할 때 회피 대처방식은 우울 증상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피 대처방식이 내향성 응답자들의 우울증상과 직무역할 및 모호성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Delta R^2 = .011$, $\Delta Adj.R^2 = .009$, $\Delta F = 4.35$, $p < .05$,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교사 5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직장 갈등 요인들(직무과부하, 직무역할 및 모호성 갈등)과 가정갈등 요인들(가사분담갈등, 자녀양육갈등) 및 대처방법들(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원요청대처, 회피대처)이 MBTI 성격유형(E-I, S-N)에 따라서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간의 관계에서 대처방법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직장 및 가정갈등 요인들, 대처방법들 및 우울 간의 MBTI 성격유형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내향성 응답자가 외향성 응답자에 비해서 우울을 더 경험하고 있고, 외향성 응답자가 내향성 응답자에 비해서 적극적 대처 방법과 사회적 지원 요청 대처 방법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형 응답자가 감각형에 비해서 직무역할 및 모호성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향성 응답자들이 내향성 응답자들보다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유정미, 1999; 홍지영, 1995; McCrae, Costa, 1986)과 일치하는 결과들로서 MBTI 성격유형 중에서 E-I차원이 대처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차원임을 시사한다.

직장갈등변인들과 가정갈등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대처방법들이 완충시키는 조절효과를 MBTI 성격유형별로 살펴보았고 발견된 유의미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향성(I), 감각형(S) 응답자들에게서 자녀양육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적 대처방식이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들은 자녀양육갈등이 증가할 때 긍정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우울증상이 심화되는 역완충효과(counter buffering)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I 차원과 S-N 차원의 선호지표의 조합별(IS(N=292), IN(N=43), ES(N=137), EN(N=32))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IS유형(N=292)의 응답자들에게서 자녀양육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역완충효과가 확인되었다, $\Delta R^2 = 016$, $\Delta Adj.R^2 = 014$, $\Delta F = 5.71$, $p < .05$. 따라서 IS유형의 응답자들도 자녀양육갈등이 증가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표 5. MBTI성격유형에 따른 대처방식들의 조절적 중다회귀 분석결과표

예측변인	대처방식	MBTI 성격유형			
		내향성 (I)	외향성 (E)	감각형 (S)	직관형 (N)
가정갈등	가사분담갈등	적극적 대처			
		사회적지원 요청 대처			
		회피 대처	↓*		↓*
	자녀양육갈등	적극적 대처	↑*		↑*
		사회적지원 요청 대처			
		회피 대처			
직장갈등	직무역할갈등	적극적 대처			
		사회적지원 요청 대처			
		회피 대처	↓*		
	직무과부하	적극적 대처			↓*
		사회적지원 요청 대처			
		회피 대처			

주. ↑ 역완충적(counter buffering) 조절효과.

↓ 완충적(buffering) 조절효과.

* $p < .05$, ** $p < .01$.

노력이 오히려 우울증상을 심화시키는 유형으로 여겨진다.

내향성(I), 감각형(S) 응답자들에게서 가사분담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회피대처방식이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들은 가사분담갈등이 증가하면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이 완화되는(buffering)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I) 응답자들은 직장에서 직무역할갈등 및 모호성이 증가할 때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생각하지 않거나 상황을 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회피대처를 많이 사용하여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향성과 감정형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정보망 구축에 분주한 반면에 내향성과 사고형들은 정보망 구축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난 McCaulley와 Martin(1995)의 연구, 외향성 기획관리자들은 주장적이고 갈등들을 통합하는 반면에 내향성 기획관리자들은 갈등상황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한 Mills, Robey와 Smith의 연구(1985: Davey & Schell, 1993에서 재인용)와 사회공포증 환자들의 93.7%가 내향성임을 발견하여서 내향성이 사회공포증 발달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주장한 Janowsky, Morter와 Tancer(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갈등이 증가할 때 주로 상황 회피적 방식인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MBTI 성격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는 김유심, 채준호, 박영숙(1999)의 연구에서 내향성 성격과 이화방어기제 중, 억제, 자아회피적인 방어기제가 높은 상관이나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향후 회피대처 방식과 내향성 유형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제중심 대처는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된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이 될 것이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상황에서는 부적응적이 되지만, 정서중심 대처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이 될 것이고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된 상황에서는 부적응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Conway와 Terry(1992)의 부합도(goodness of fit) 가설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문제에 문제

중심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한 문제에 문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했을 때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Compas, Malcarne와 Fondacaro(1988)의 연구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외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든 자녀양육문제에 내향성과 감각형 맞벌이 직장인들이 문제중심의 적극적 대처를 할 때 오히려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들이 부부간의 가사분담문제를 문제 중심적인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회피대처방식을 사용했을 때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황의 통제가능성의 지각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식의 선택이 적응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대처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Weise, Rothbaum과 Blackburn(1982: 전경구, 1996에서 재인용)은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지각, 목표, 및 소망에 맞추어 주위에 존재하는 물리적, 사회적 또는 행동적 실재를 변화시키는 양식인 1차적 통제가 주로 쓰이고, 자신을 자신의 주위환경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통제감을 성취하는 경우인 2차적 통제가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에서 주로 쓰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내향성과 감각형들이 갈등상황에서 회피대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한국인들의 MBTI 성격유형이 I형이 E형에 비해서 우세하고 S형이 N형에 비해서 우세하게 나타난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1995)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2차적 통제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통제감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장업무의 과다와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느낄 때 직관형 응답자들은 오히려 문제해결적인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이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각형들은 그들의 작업에서 정확한 면과 세부적인 면들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선호하는 반면, 직관형들은 신속한 결정과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Schweiger와 Jago(1982: Davey & Schell, 1993에서 재인용)의 연구, 인식형들에 비해서 감각형들이 구조화된 결정사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발견한 Davis, Grove와 Knowles(1990)의 연구. 신용금고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관형과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련성을 발견한 우현희(1997)의 연구, 상위관리직들은 불확실성이 높고, 사실과 시간이 부족한 조직환경에 적절한 인식형 인지양식을 선호한다는 Davis 등(1990)의 주장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식형들은 직무갈등상황에서 감각형들과는 다르게 문제 해결적인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MBTI 성격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장업무에 대해서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문제 중심적인 적극적인 대책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 소극적인 대처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직관형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문제해결적인 적극적 대처를 통하여 직무과부하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트레스에 대하여 특이한 대처방식을 하는 성격유형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왜곡, 승화, 유머와 같은 자아확대적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 결과(김유심 등, 1999)로 여겨진다. 또한 미국과 아일랜드의 영재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직관형 점수가 높은 것을 발견한 Mills와 Parker(1998)의 연구, MBTI의 직관형이 NEO-PI 5 요인 성격검사(Costa & McCare, 1985)의 개방성 중창의성의 지표인 아이디어, 환상 요인들과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 Furnham(1996)의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수렵적 사고보다는 확산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성격 유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직관형이 내외 통제형이나 A형 행동유형처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하여 특이하게 지각하고 대처하는 개인차 변인으로서 탐색되어야 할 성격유형으로 사료된다. 특히 E-I 차원과 S-N 차원의 선호지표의 조합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IN유형(N=43)의 응답자들에게서 직무과부하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확인되어서, $\Delta R^2 = 156$, $\Delta Adj. R^2 = 143$, $\Delta F = 7.70$, $p < .01$, IN유형이 스트레스에 대한 특이한 반응 유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EN유형(N=32)의 사례수가 너무 작아서 향후에 IN유형과 EN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갈등상황에서 내향성과 감각형들은 회피대처 방식이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적 적극적 대처방식이 비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인식형들은 문제해결적인 적극적인 대처방식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성격유형에 따라서 다른 대처방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MBTI 성격유형에 따라서 대처방식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들의 갈등유형과 MBTI 성격 유형에 따라서 다른 대처전략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여 함을 시사한다.

가사분담 갈등과 자녀양육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조력이나 외부의 지원이 요청되는데, 침묵을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내향성 내담자의 특성과 구체적이며 자세하며, 많은 선택지들을 보지않고 새로운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형 내담자의 특성(Bayne, 1995)상 내향성과 감각형 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행동화에 거부적이기 때문에(Furnham,

1996) 가사분담 갈등과 자녀양육 갈등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자는 스트레스원들에 대한 내성 기르기(인지적 평가, 인지적 재구조화, 스트레스면역 훈련), 스트레스에 대한 각성수준 낮추기(심호흡법, 점진적 이완훈련, 초월적 명상, 자기최면, 신체운동) 같은 스트레스 대처전략들을 학습시키고 주위에 대한 지원요구나 배우자를 변화시켜서 갈등원 자체를 변화시켜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문제 해결적 상담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제 자체보다는 추락된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주는 지지적 상담기법을 사용한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직관형 내담자들은 시야가 넓고, 많은 선택지들을 보며, 사실을 간과하며 신기함과 상상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특성(Bayne, 1995)상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자신이 해결하기 어렵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역할갈등 상황들에 대해서도 통제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업무과부하로 인한 갈등을 호소하는 직관형 내담자들에게 상담자는 문제해결 기술 훈련, 시간관리 기법과 같은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학습시키고, 직관형 내담자들은 갈등원 자체를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갈등원 자체를 변화시켜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수반하는 문제 해결적 상담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상담시에 일방적인 상담자 중심의 상담 방식보다는 내담자의 경험하고 있는 갈등유형과 성격유형까지를 고려하여 상담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추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맞벌이 교사집단만을 표집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다른 맞벌이 직장인들에게까지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다양한 직업표집을 통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수거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직장과 가정갈등과 우울간의 관계를 완충하여 적응적 효과성이 발견된 단기적 대처양식들이 장기시점에서도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종단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즉 위협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최소화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스트레스 사건들이 만성적이고 재발적이라면 회피대처는 성공적이 되지 못하며 많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단기간의 스트레스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회피대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Kaplan(1996)의 주장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권인 우리나라도 2차적 통제를 통하여 자신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적응적이라면 장기간에도 회피대처 효과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회피적 대처가 장기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게 위한 종단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실제적인 통제가능성인 객관적인 통제감 보다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통제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데(Endler, Speer, Johnson, & Flett, 2000) 본 연구에서는 통제감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지 않아서 향후 주관적인 통제감에 대한 지각까지를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 상황에 대한 통제감과 대처방식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NEO-PI 5요인 성격검사 중에서 MBTI의 4

차원 유형에서 실증된 성격요인이 신경증차원인 것으로 밝혀진 연구(McCrae & Costa, 1989; Furnham, 1996), 신경증이 대처행동과 관련된 것을 발견한 연구(Headey & Wearing, 1989)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MBTI 성격유형검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신경증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개인차에 따른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NEO-PI 5요인 성격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NEO-PI 5요인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MBTI 성격유형들 중에서 사례수가 작은 직관형은 대처양식들의 조절효과의 발견 가능성이 적고, 현장연구가 실험연구에 비해서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McClelland & Judd, 1993) 본 연구에서 완충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개인차에 따른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차후 대규모 표집의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절적 중다 회귀분석 방법들은 측정오차가 발생하며 이런 측정오차들이 회귀계수에 있어서의 편향을 일으키고 상호작용효과와 검증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Jaccard & Wan, 1995)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오차의 교정이 가능한 공변량 구조모형에 의한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유심, 채준호, 박영숙 (1999). MBTI 성격유형과 이화방어기제 상관관계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6, 67-88.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MBTI의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
- 서혜영 (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김정택 (1990). 성격유형검사 (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3, 44-72.
- 우원희 (1997). 최고경영자의 성격(MBTI)과 변혁적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광주·전남지역 신용금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이 (1999). MBTI를 통해서 본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6, 107-120.
- 이은희 (2000). 일과 가족갈등의 통합모형: 선행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1-42.
- 이은희, 이주희 (200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45-175.
- 이은희, 최태산, 임은정 (2000).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과 탈진과의 관계: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원 요청 대처, 회피 대처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 183-203.
- 이종목 (1988). 직무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I). 사회심리학 연구, 4, 241-262.
- 전경구 (1997). 건감심리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한국과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pp. 431-503). 서울: 성원사.
- 한국여성개발원 (1997). 1997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하현숙 (1995).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손상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지영 (1995).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3rd ed.)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dwin, C. M.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Bayne, R. (1995). Psychological type and counsel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23, 95-106.
- Benin, M. H., & Agostinelli, J. (1988). Husbands' and wives'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349-361.
- Bhagat, R. S., Allie, S. M. Ford, D. L. Jr. (1995). Coping with stressful life events: An empirical analysis. In a R. Crandal & P. L. Perrewé (Eds.), *Occupational stress: A handbook* (pp. 93-112).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Billings, A. G., & Moos, R. H. (1982). Psychosocial theory and research on depression: An integrative framework and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 213-237.
- Blair, S. L., & Johnson, M. P. (1992). Wive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intersection of housework and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70-581.
- Bolger, N., & Schilling, E. A. (1991). Personality and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The role of neuroticism in exposure and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59, 355-386.
- Caplan, R. D., & Pinneau, R. (1973). *Questionnaire: Job demands and work health study*. Ann Arbor, Michigan: ISR, University of Michigan.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oe, C. K. (1992). The MBTI: Potential uses and misuses in personnel administratio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1, 511-522.
- Cooper, C. L., & Sadri, G. (1995). The impact of stress counseling at work. In a R. Crandal & P. L. Perrewé (Eds.), *Occupational stress: A handbook* (pp. 179-192).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Conway, V. J., & Terry, D. J. (1992). Appraised controllability as a moderator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coping strategies: A test of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1), 1-7.
- Costa, P. T.,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verman, S., & Sheley, J. F.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Davey, J. A. & Schell, B. H. (1993). The Myers-Briggs personality indicator and its usefulness for problem

- solving bu mining industry.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93, 18, 50-65.
- Davis, D. L., Grove, S. J., & Knowles, P. A. (1990).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personality type as an analogue for decision-making style. *Psychological Reports*, 66, 167-175.
- Dohrenwend, B. P., Shrout, P. E., Egri, G., & Mendelsohn, F. (1980).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and other dimensions of psychopatholog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1229-1236.
- Dryden, W., & Feltham, C. (1992). *Brief counseling*. Buckingham: Open University.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Endler, N. S., Speer, R. L., Johnson, J. M., & Flett, G. L. (2000). Controllability, coping, efficacy, and distr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245-264.
- Fleishman, J. A. (198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ping patter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 229-244.
- For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rsythe, C. J., Compas, B. E. (1987). Interaction of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ful events and coping: Testing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473-485.
- Furnham, A. (1996). The big five versus the big fou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and NEO-PI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303-307.
- Havlovic, S. J., & Keenan, J. P. (1995). Coping with work stres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 R. Crandal & P. L. Perrewé (Eds.), *Occupational stress: A handbook* (pp. 179-192).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Heady, B., & Wearing, A. (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31-739.
- Jaccard, J., & Wan, C. K. (1995). Measurement error in the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ntinuous predictors using multiple regression: Multiple indicator and structural equation approaches. *Psychological Bulletin*, 117, 348-357.
- Janowsky, D. S., Morter, S., & Tancer, M. (2000). Over-representation of Myers Briggs Type Indicator introversion in social phobia patients. *Depression & Anxiety*, 11, 121-125.
- Kaplan, H. B. (1996). *Psychological stress: Perspective on structure, theory, life-course, and methods*. CA, San Diego: Academic Press.
- Kirmeyer, S. L., & Diamond, A. (1985). Coping by police officer: A study of role stress and type A and type B behavior pattern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6, 183-195.
- Kluwer, E., Heesink, J., & Van de Vliert, E. (1997). The marital dynamics of conflict over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35-653.
- Latack, J. C., & Havlovic, S. J. (1992). Coping with job stress: A conceptual evaluation framework for

- coping measur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479-508.
- Lazarus, R. S. (1995). Psychological stress in the workplace. In a R. Crandall & P. L. Perrewé (Eds.), *Occupational stress: A handbook* (pp. 3-14).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azarus, R., & Folkman, S. (1991). Coping and emotion. In A. Monat & R.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207-227).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34-440.
- Lubinski, D., & Humphreys, L. G. (1990). Assessing spurious "moderator effects": Illustrated substantively with the hypothesized("synergistic") relation between spatial and mathematical 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07, 385-393.
- Maret, E., & Finlay, B. (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a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McCaulley, M. H., & Martin, C. R. (1995). Career assessment an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 219-239.
- MacCallum, R. C., & Mar, C. M. (1995). Distinguishing between moderator and quadratic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18, 405-421.
- McCrae, R. R., & Costa, P. T.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5.
- McCrae, R. R., & Costa, P. T. (1989). Reinterpret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57, 17-40.
- McClelland, G. H., & Judd, C. M. (1993). Statistical difficulties of detec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114, 376-390.
- Miller, T. R. (1991). The psychotherapeutic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415-433.
- Mills, C. J., & Parker, W. D. (1998). Cognitive-psychological profiles of gifted adolescents from Ireland and the U. S.: Cross-societal compari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 1-16.
- Milner, P., & Palmer, S. (1998). *Integrative stress counseling: A humanistic problem-focused approach*. New York: Cassell.
- Morris, J. H., Sherman, J., & Mansfield, E. R. (1986). Failures to detect moderating effects with ordinary least squares moderated-regression: Some reasons and remedy. *Psychological Bulletin*, 99, 282-288.
- Murphy, L. R. (1988). Workplace interventions for stress reduction and prevention. In C. L. Cooper & R. Pane (Eds.),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of stress at work*. New York: John Wiley & Sons.
- Pea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hodewalt, F., & Zone, J. B. (1989). Appraisal of life change, depression and illness in hardy and

- nonhardy wo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81-88.
- Ross, C. E., & Mirowsky (1988). Child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Roth, S., & Cohen, L.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Strickland, B. R. (1978). Internal-External expectancies and health related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192-1211.
- Suitor, J. J. (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21-230.
- Swanson, N. G., & Murphy, L. R. (1991). Mental health counseling in industry. In C. L. Cooper & I. T. Robertson (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p. 265-282). New York & London: John Wiley & Sons.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Thompson, B., & Ackerman, C. M. (1994). Review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J. T. Kapes, M. M. Mastie, & E. A. Whitfield (Eds.), *A counselor's guide to career assessment instrument* (pp. 281-287). Alexandria, VA: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 U. 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5). *Woman in the workforce: An overview*.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Yogev, S., & Brett, J. (1985). Perception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09-618.

원고접수일: 2001. 6. 30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14

게재결정일: 2001. 12. 4

부 록

대처방식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varimax rotation)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9.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한다.	<u>.794</u>	.131	-.082
11. 기대대로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u>.734</u>	.197	-.106
10.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한다.	.661	.355	-.122
8. 이 상황이 주는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u>.564</u>	.219	-.011
7. 스스로를 어려움을 항상 헤쳐가는 승리자로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u>.550</u>	.130	.092
12. 나를 뭔가 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15	<u>.664</u>	.043
13. 영향력은 없지만, 기대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밖의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223	<u>.626</u>	.041
1. 상사 및 웃어른과 함께 의논한다.	.076	<u>.540</u>	-.070
4. 관련된 사람들(상사는 제외)과 이야기한다.	.221	<u>.485</u>	-.115
2. 될 수 있는 한 이 상황을 피한다	-.211	-.128	<u>.655</u>
3.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012	.099	<u>.622</u>
5. 이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로 부터 가능한 한 떨어져 있다.	-.112	-.191	<u>.534</u>
6.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96	.047	<u>.383</u>
요인고유가(Eigenvalue)	3.38	1.24	.84
요인설명량(% Variance Explained)	61.9	22.7	15.4

주. N = 516. 요인1: 적극적 대처, 요인2: 사회적 지원 요청 대처, 요인3: 회피 대처.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yles between Dual Career Couples' Multiple Role Conflicts and Depression Depending upon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Style

Eun-Hee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Hee Lee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home conflicts and depression, and how these strategies differ depending upo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style.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 dual couple of teachers' group (258 couples). From the MBTI personality classification viewpoint (355 Introversion preference, 169 Extroversions preference, 431 Sensing preference, 76 iNtuitio preference), the avoidance coping style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b conflict and job ambiguity, while the active coping style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hild care conflict by Introversion preference respondents. The avoidance coping style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while the active coping style negatively moderated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hild care conflict by Sensing preference respondents. The active coping style positively moderated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job overload by iNtuitio preference respondents. From these findings, we revealed the differential efficiency of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role conflicts and depression experienced by dual career couples. The controllability on circumstances is implicated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coping strategies. Based up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iNtuitio preference personality style, as a potential stress related personality, was discussed and the limit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noted.

Key Words : role conflicts, depression, MBTI personality style, coping style, moderating effect